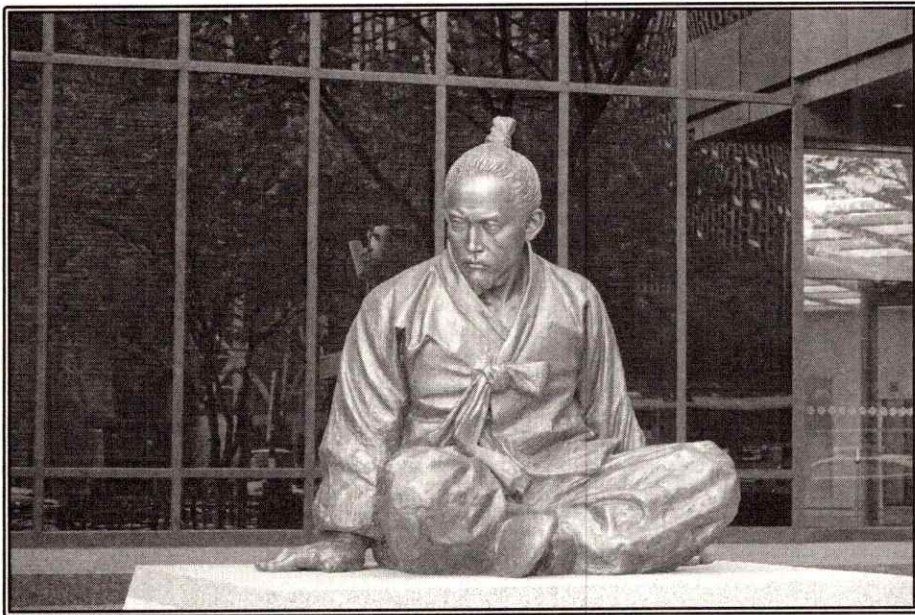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11:00~17:30
- 주최 :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 후원 : 고창군

발 간 사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94년 3월 20일 (양력 4월 25일) 고창 출신인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수천여 명의 농민군이 현재 고창군에 소속된 무장현에 모여 역사적인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당시 조선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을 일소하여 나라를 혁신하고,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오른 한국역사상 최대의 민중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십수 년 전부터 고창군민과 일반 국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해 온 학자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은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대회가 15번째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고창군에서 후원한 학술대회를 통해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사실, 고창이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고을이라는 사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고, 학계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고창군은 2014년부터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해방 이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오지영의 『동학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대회(<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종합적 고찰>)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 농민군 활동에 대한 재조명>, 2016년

과 2017년에는 각기 <전봉준 장군 생가터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및 보존 방안>과 <고창지역 동학 농민군의 활동과 기념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고창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이 태어난 고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창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서울 종로 네거리에 건립되었으며, 남북한 간에도 평화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북한 지역 농민전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멀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과 의미를 한층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및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의 국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라는 의미 있는 기념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남북한 간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이해, 특히 전봉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고창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동상건립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향후 수정, 보완해 나갈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비교하여 남북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남북한 간 역사인식을 둘러싼 소통과 교류에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를 비교하여 특히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미지 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의 동학농민혁명과 고창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관련한 남북 교류,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지원해준 고창군과 유기상 군수님,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흔쾌히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이이화 선생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124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목 차

기조강연 Ⅱ 남북 화해의 시대와 동학농민혁명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
[제1주제]	
발표 Ⅱ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 신영우(충북대)	7
[제2주제]	
발표 Ⅱ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 내용과 과제 김양식(충북학연구소)	27
[제3주제]	
발표 Ⅱ 남북한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비교 배항섭(성균관대)	45
<부록>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 준박사 김길신	63
[제4주제]	
발표 Ⅱ 남북한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전쟁 비교 이신철(성균관대)	81
학술대회 녹취록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99
사회 : 최덕수(고려대)	
토론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재곤(서강대), 송양섭(고려대),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1917

[기조강연]

남북 화해의 시대와 동학농민혁명

이 이 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남북화해의 시대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과 통일시대의 역사적 의미-

이이화(역사학자,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오늘날 통일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근대와 현대에서 전개된 민족민주정신을 계승한 촛불혁명의 결실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국의 근대는 결정적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 열었습니다. 곧 안으로는 봉건모순인 신분제를 타파해 인간 평등을 실현시키려 했고 밖으로는 민족모순인 열강의 침략에 맞서 반침략 자주를 지향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한 3.1운동은, 조선이 말할 나위도 없이 식민지 질곡을 벗고 독립국가로 이룩하려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결실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민국가를 지향한 임시정부의 태동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4.19혁명과 5.18과 6월 민주항쟁은 반독재,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저항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이 운동이 농민혁명의 경우처럼 정치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역사의 도정에서 보면 바로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10년대를 맞이하는 오늘날, 남북화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평화적 민족통일일 것입니다. 이 시대정신은 근대와 현대를 잇는 자주적 통일국가의 수립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조강연에서는 근현대의 사건을 통해 소박하게나마 이 과제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동학농민혁명과 평등 자주의 지향

동학농민혁명의 기본 지향은 먼저 차별적 신분사회의 해체와 양반의 특권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겹보기에는 당시 현실적 정치모순인 민가네 세도정치를 타도하는 것에 모아졌습니다. 이어 세도정치의 하수인인 수령과 아전의 불법 탐학에 저항했습니다. 이는 집강소 활동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 등 여성차별도 그 범주에 들었습니다. 다음 노비 백정 등 천민의 지위를 개선하고 이들을 해방시키는 데에 맞추어졌습니다.

이 신분차별은 조선 후기부터 비밀결사인 살반계(殺班契), 살주계(殺主契) 등 변혁세력이 주창한 봉건모순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개화파 정권이 주도한 갑오개혁에 개혁조항으로 반영되어 일단 제도로는 실현되었습니다. 문벌 양반들이 이에 저항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힘입어 향촌사회에서도 신분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음 동학농민군은 토지를 독점한 토호와 지주를 타파하는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토지의 평균분작(平均分作)의 폐정조항은 애매하지만 집강소에서는 실천적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집강소 활동의 짧은 기간으로 그 구체적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도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균전론(均田論), 한전론(限田論), 여전론(閭田論) 등 토지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 활동한 비밀결사에는 부호 지주를 대상으로 한 살약계(殺掠契)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제는 지주를 유지하려는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 갑오개혁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반침략 자주국가 수립을 지향한 과정을 봅시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열강은 1876년 개항 이래 조선과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어 상품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추진한 정한론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부설권, 철도부설권, 금광개발권 등 이권을 앗아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괴뢰정권인 갑오정권을 수립하면서 내정을 거머쥐

었습니다. 이는 반식민지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동학교도와 농민군 지도자들은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 각국 공사관과 교회에 ‘너희들 나라로 물러가라’라는 방문을 붙이기도 하면서 배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어 보은집회와 원평집회에서는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내걸고 양물 불매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이 기치는 농민봉기 당시에 도 내걸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에 그 명분을 분명히 침략자들을 배격하려 봉기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청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외국 침략세력을 구축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이 실질적으로 군사지휘권을 거머쥐고 농민군 토벌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청나라는 직접 개입했다가 청일전쟁으로 쫓겨났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군 대토벌작전에 대량학살이 이루어졌으나 열강은 아무런 제재나 간섭을 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농민군이 이권을 차지하는 열강에 대해 배외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서 방관한 것입니다. 이런 정황이 현지 보고서를 모은 <뮤텔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막연하지만 농민군이 외세를 구축하고 자주국가를 지향한 한 증거입니다.

2)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국민국가 건설

3.1운동을 혁명이라 명명하는 건 그만한 역사적 도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가 10여 년 이어지자 한민족은 거대한 횃불을 들고 평화적 만세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를 주도한 지도자들은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인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동학농민군 활동을 한 이가 3분의 1쯤 됩니다. 모든 자금도 천도교인이 낸 성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찍어 돌리고 독립신문을 배포하며 다른 지도자들의 활동자금 등을 모두 천도교에서 공급했습니다. 만세시위에도 천도교인이 가장 많았고 무명의 동학후예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의병 시기에 동학

농민군 출신이 대거 참여했다가 유림의병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선독립선언서>에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 하노라.”로 시작됩니다. 독립국과 자주민이란 표현은 바로 민족독립국가를 지향한 것입니다. 3.1운동의 기반을 닦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동되었습니다. 임시정부 헌법에는 대한제국을 승계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민국을 지향한 것입니다.

여기 국명에 나타난 ‘민국’은 국체를 공화제, 이념을 주권재민의 국민국가를 표방한 것입니다. 또 정부형태는 의회제를 채택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학문 사상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분, 교육, 토지 등에 기회 균등을 보장했습니다. 행정부 조직은 대통령제이든 주석제이든 그 기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밝혀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전승 연합국이나 국제연합에 의해 태동한 게 아니라 3.1운동의 민족적 지지와 임시정부의 건국이념을 따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한 사회평등과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거부한 근대 여명기의 역사적 교훈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민주 가치를 찾은 반독재 민주항쟁

이승만정권은 독재 수법을 꺼내들고 장기집권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정 시기와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전시작전권을 내주는 등 반자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이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 실현에 불을 댕겼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절차의 회복과 함께 통일국가를 지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세력이 집권

을 하지 못해 군부세력의 방해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군부에 의해 민주주의 질서는 파괴되어 '유신'이라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유신은 반역사적 반통일적 궤방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유신의 사생아였습니다.

5.18과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질서의 회복을 지향했습니다. 이 항쟁은 반민주적 유신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가치를 찾고 절차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그 중심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세력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전 지역과 모든 계층이 동참했습니다. 마침내 신군부는 분출하는 민중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권운동과 통일운동이 병행해서 전개되어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가 정립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한때 좌절되는 듯했으나 70년 동안 이룩한 민주항쟁의 역사는 무덤에 묻히지 않고 찬란한 햇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주시민에 의해 촛불혁명이 이룩된 것입니다.

4) 촛불혁명과 자주적 평화통일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여러 적폐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발은 무엇보다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독재를 합리화하고 산업화의 주역으로 내세우며 10월유신을 미화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반역사적 반민주적 역사교과서국정화는 거센 반대운동에 마주쳤습니다. 그런 뒤 여러 적폐가 알려지자 민주시민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촛불혁명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리해 새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촛불혁명은 멀리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향과 3.1운동의 민족정신과 4.19혁명, 5.18과 6월 민주항쟁의 민주주의 회복에 그 뿌리를 두었습니다. 새 정부는 지금 거대한 통일지향의 여러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나요? 그 원인(遠因)은 일제 식민지와 전쟁 도발에 있었고 근인(近因)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에 있습니다.

전승국들이 벌인 국제역학의 결과물입니다. 이승만정권은 전시 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어 자주 독립국가의 가장 기본인 군사지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회담 당사국도 미국과 북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민족통일은 자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주체가 아닌 결다리가 되어서는 자주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만들면서 평화통일의 과정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뒤 군사작전권도 넘겨주고 주한미군도 철수해 합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전략기지로 삼으면 결코 평화통일은 이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주통일의 노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 근대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족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근현대 시기에 전개된 여러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에서 교훈을 얻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대국의 간섭과 국제역학에 농단되어서는 목적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창에서 그 단초를 연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살피면서 현실의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또 전봉준 동상이 촛불혁명의 열기를 타고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 1가에 세워져서 새삼 그의 정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좀 거창하겠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지향을 통한 민족통일의 실현이 역사적 과제임을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지역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1주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

**신 영 우
(충북대)**

[연구발표 제1주제]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

신영우(충북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와 기념사업

신 영 우(충북대)

1. 머리말
2. 한국 최초의 역사인물 동상
 - 1) 1927년 휘문고보의 민영휘 동상
 - 2) 동상 제작 작가 문제
3.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동상
 - 1) 최제우 2) 최시형 3) 손병희
4. 한국 근대인물의 동상
5. 중국 근대 인물의 동상
6.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
 - 1) 현 전봉준 장군 동상
 - 2) 주요 동상 제작 검토 항목
7. 전봉준 동상 건립의 의의

1. 머리말

1) 역사 인물을 기리는 동상

- 인물 동상은 기념비와 기념탑과 같은 성격의 건축물
- 설치 장소에는 역사성 등 여러 의미 부여
- 국가와 민족사에서 기념할 인물이 동상의 대상
- 동상 건립은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 - 세계의 주요 동상이 갖는 역사 유적지의 의미

2)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전봉준 장군(1854~1895) 동상의 의미

- 2018년 4월 종로 네거리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 동상 건립 장소는 전옥서(典獄署) 터
- 의금부와 권설(權設)재판소 인근의 감옥 - 권설은 가설(假設)이란 뜻(권설직=임시직)
- 순국 123주년만에 서울에 건립한 동상
- 경사(京師, 서울)로 직행할 사 - 경사13도(京師十三道)
- 명예를 회복한 동학농민혁명을 상징

3) 1927년 한국 첫 동상은 민영휘, 2018년 최근 동상은 전봉준

- 동상 제작은 김경승(1915~1992) - 기념 동상과 역사인물상 제작
- 일제 말 금속공출로 강제 헌납 - 1966년 다시 제작, 민복진(1927~2016)
- 민영휘는 갑오년 당시 여흥민씨, 최대의 탐관오리 - 무장봉기 원인 제공
강화유수 형조판서 예조판서 한성판윤 경리사 통위사 총어서 지훈련원사
원세개에 청병 요청, 휘문의숙, 식산은행 한성은행 한일은행 동일은행 등

4) 전봉준 동상 제작 - 준비 단계 자료 확인

- 사료와 사진 검토 - 전옥서 권설재판소 일본공사관 조사
- 제작 문제 - 갓과 두루마기 등
- 입상과 좌상

2. 한국 최초의 역사인물 동상

1) 1927년 휘문고보의 민영휘 동상

- 민영휘(閔泳徽)는 민영준(閔泳駿, 1852~1935) 이 개명한 이름
- 민영준은 갑오년 당시 척족 여흥민씨 실권자
- 조선왕조 최대의 탐관오리 - 무장봉기 원인 제공
강화유수 형조판서 예조판서 한성판윤 경리사 통위사 총어사 지훈련원사
원세개에 청병 요청, 휘문의숙, 식산은행 한성은행 한일은행 동일은행 등

2) 동상 제작 작가 문제 - 김경승 민복진

• 김경승(1915~1992)

- 1939 도쿄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 졸업
- 1939 제18회 조선미전 「소녀입상」
- 1940 제19회 조선미전 「목동」 특선
- 1941 제20회 「어떤 감정」 창덕궁상
- 1942 제21회 특선, 총독상 「여명」
- 1944 제23회 「제4반」 - 「여성동원」 고무
- 1941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
- 1944 결전미술전람회 「대동아 건설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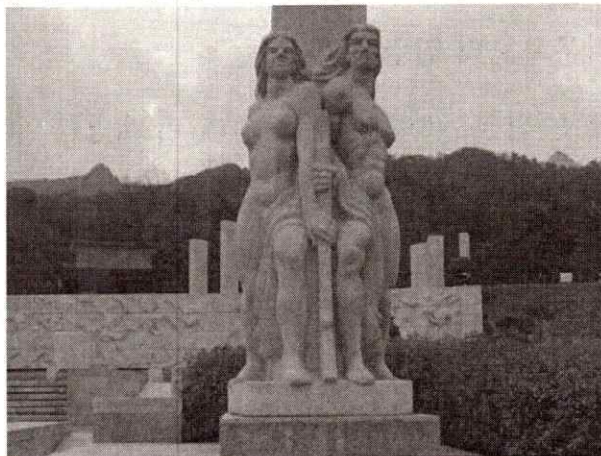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 1964 3·1문화상, 1982 은관문화훈장
- 1955 「충무공 이순신장군 동상」 1959 「안중근의사상」
- 1968 「세종대왕상」 1968 「김구선생상」 1969 「김유신장군 기마상」
- 1970 「정몽주선생상」

• 민복진(192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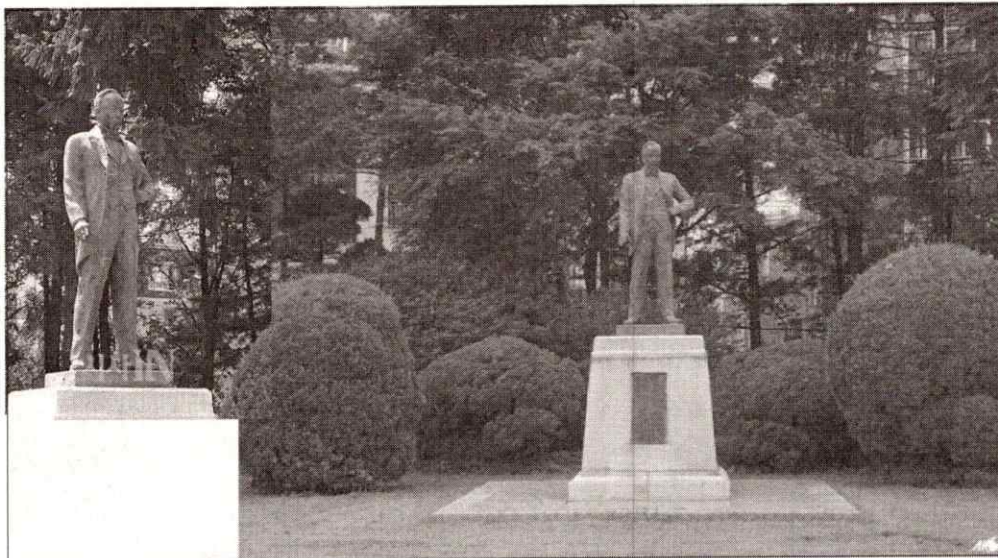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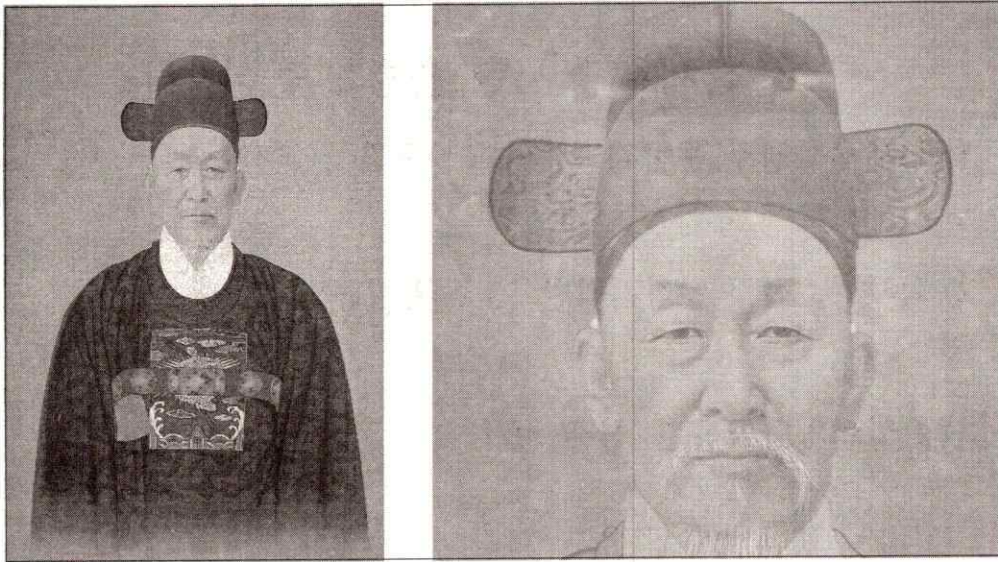
- 1963 「4.19학생혁명기념탑」 1974 「남강 이승훈 선생상」 1975 「매헌 윤봉길 의사상」
- 1987 「단재 신채호 선생상」

4. 19 민주묘지 수호자상(김경승, 1915~1992)



3) 민영휘 동상 자료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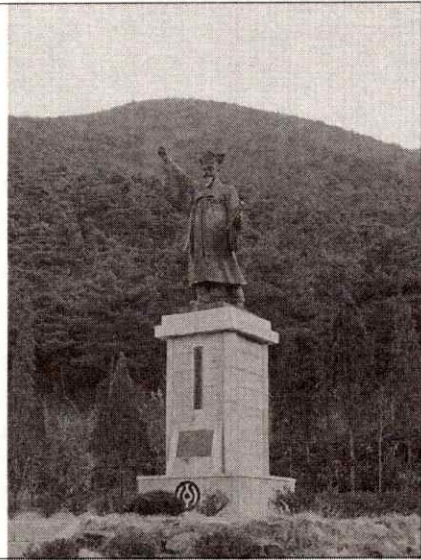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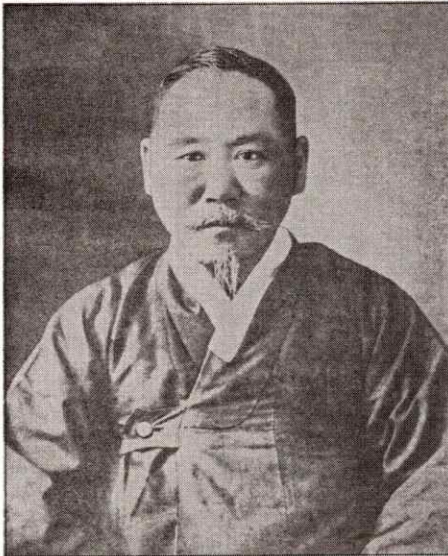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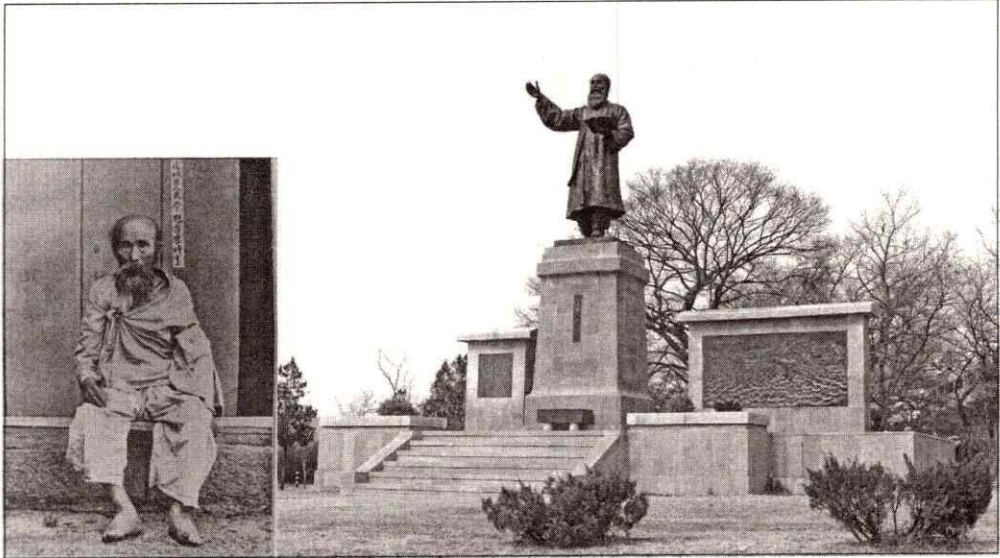
3.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 동상

- 1) 최제우 : 경주 용담정, 대구 달성공원
- 2) 최시형 : 전주 동학기념관, 경주 황성공원
- 3) 손병희 : 탑골공원, 청주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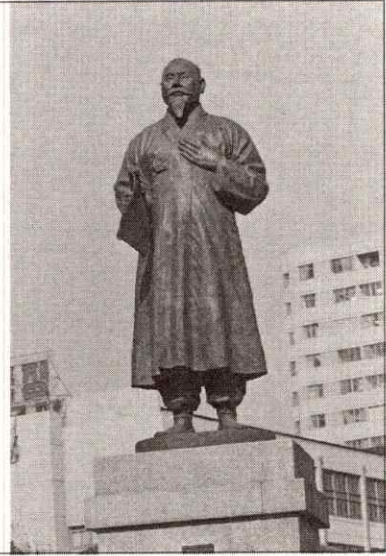


최제우 동상





손병희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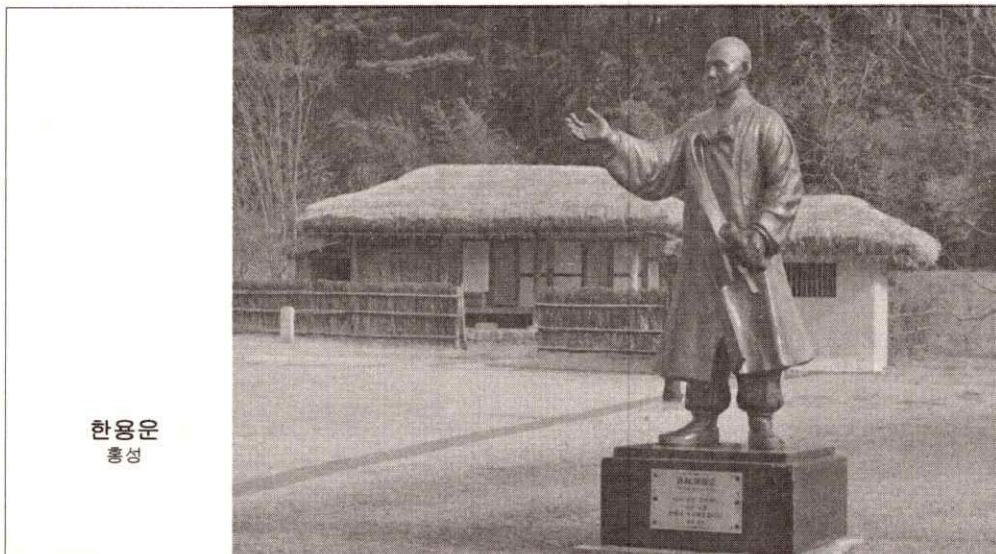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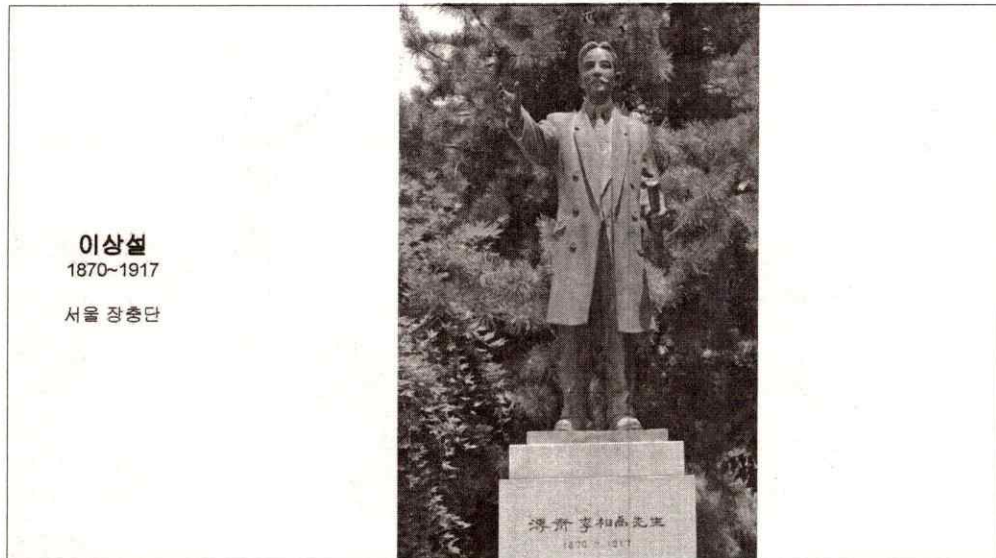
4. 한국 근현대 인물의 동상

- 1) 최익현 2) 민영환 3) 이상설 4) 이 준
5) 한용운 6) 이상재 7) 김창숙 8) 신채호
9) 김 구 10) 안중근



최익현
1833~1906

충남 청양
최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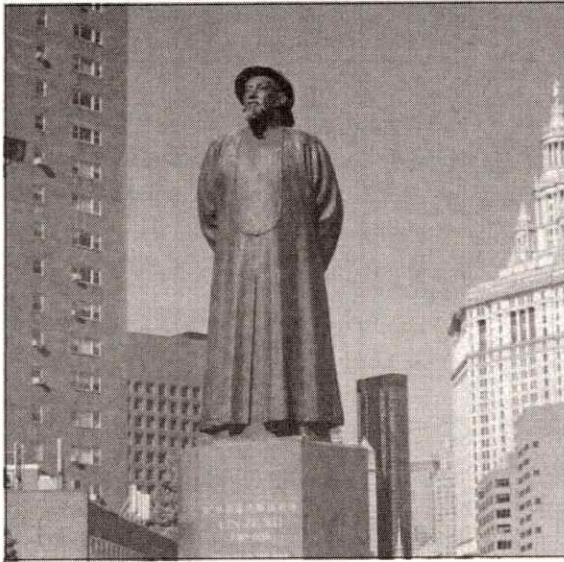


김 구
1876~1949
서울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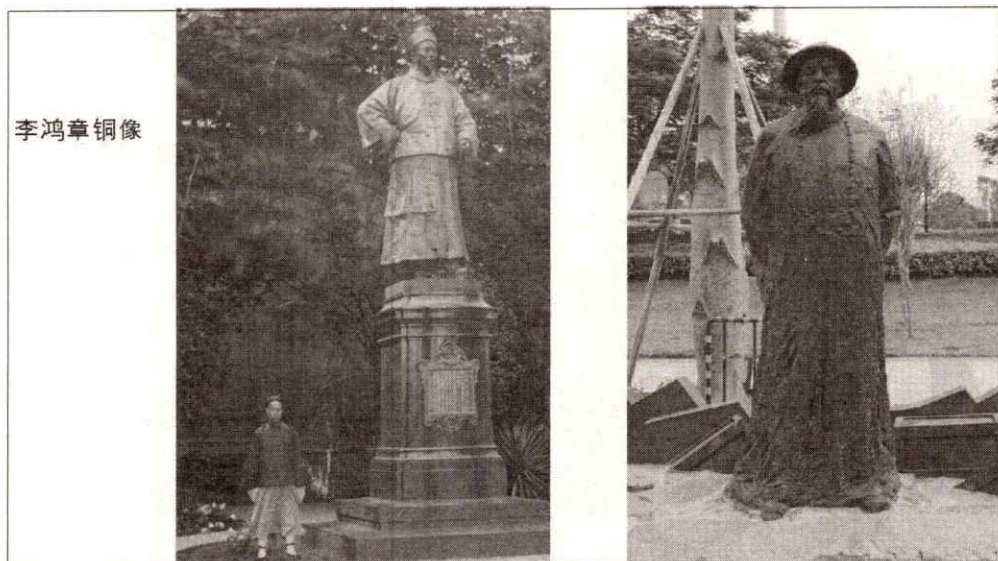
5. 중국 역사인물의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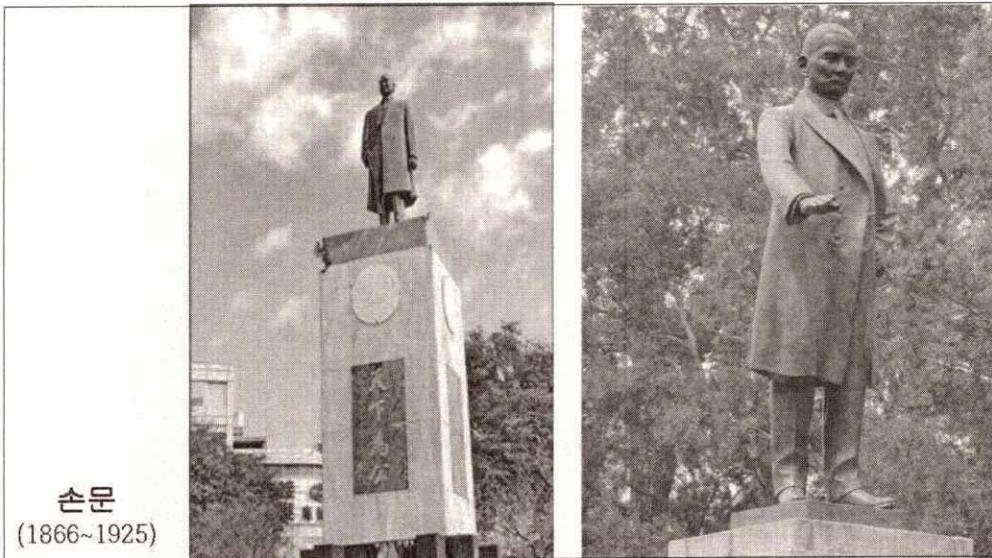
- 1) 갑오중일박물관 2) 임칙서
- 3) 이홍장 4) 위 원
- 5) 양계초 6) 정여창
- 7) 손 문



임척서
(林則徐, 1785~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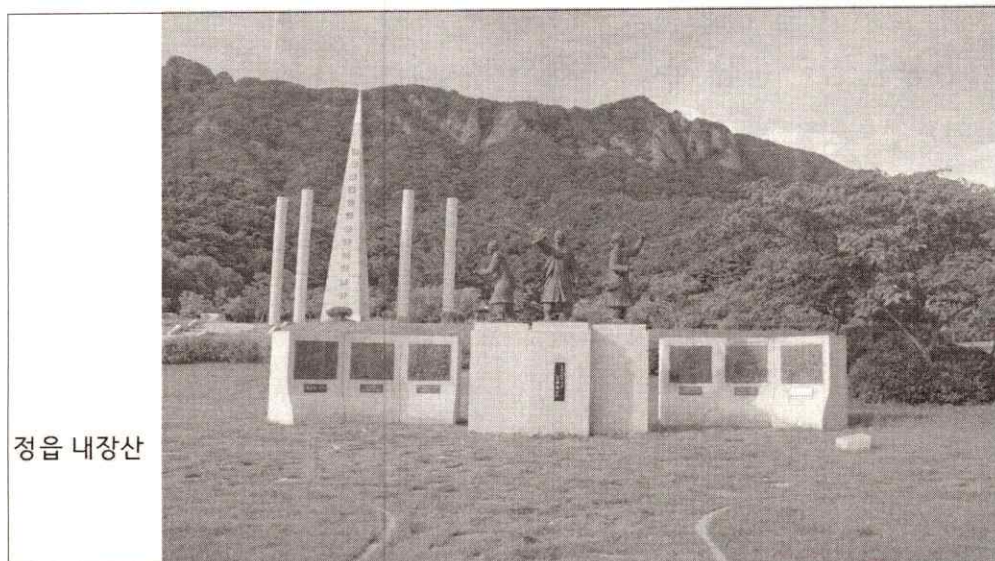




6.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

1) 기존 전봉준 장군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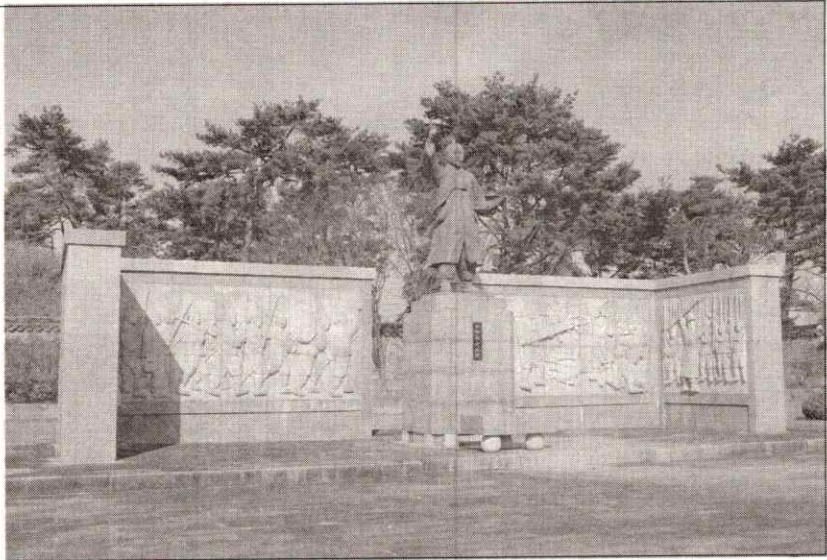
- * 전주 덕진공원 동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 정읍 내장산 전봉준공원 동상 (정읍시 쌍암동 392)
- * 정읍 황토현전적지 동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3)



정읍 내장산

전봉준 장군
동상
(정읍 황토현기념관)

높이
2.7m



2) 주요 동상 제작 검토 항목

① 자료 검토

- * 전봉준은 청국과 일본의 주요 근대인물과 비교되는 인물
 - 변혁 의지, 방향 제시, 대세 파악, 국내세력 연합주장, 군사 지도력
- * 종로 네거리의 전봉준 장군 동상 -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 상징

② 주요 동상 제작 검토 항목

- * 동상 표현 : 두 손의 위치(올린 모습, 또는 내린 모습)
 - 무기, 또는 선언서를 든 모습
 - 상투 차림, 또는 갓을 쓴 모습
 - 두루마기, 또는 바지 저고리
 - 선 모습, 또는 앉은 모습

③ 상투와 두루마기 검토

* 전봉준 동상의 표현 문제

- 상투 차림 : 양반 신분의 의관 정제(衣冠整齊)와 다름, 죄수 표현
- 갓을 쓴 모습
- 두루마기 : 외출복, 예복
- 바지 저고리

④ 입상(立像)과 좌상(坐像)

* 동상 제작 차이

8. 전봉준 동상 건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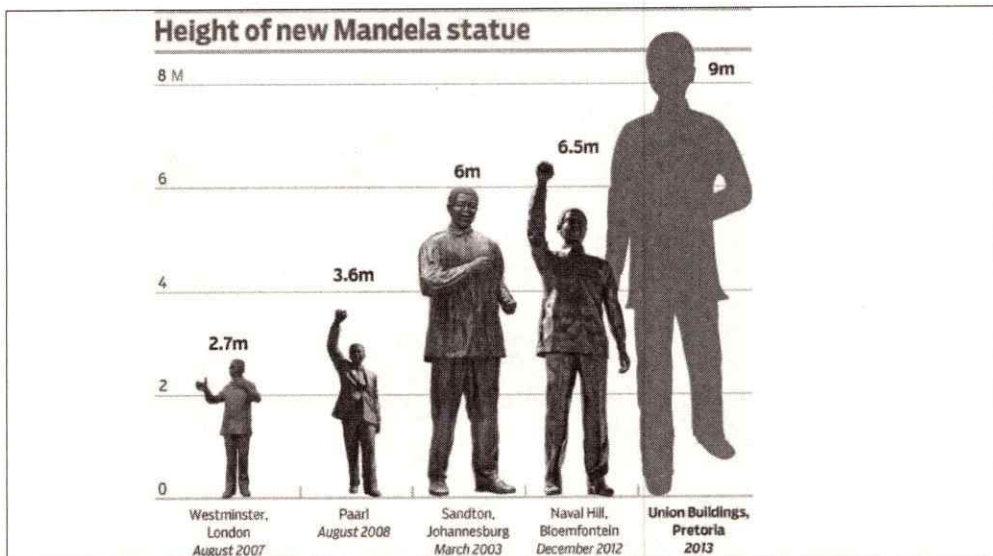
1)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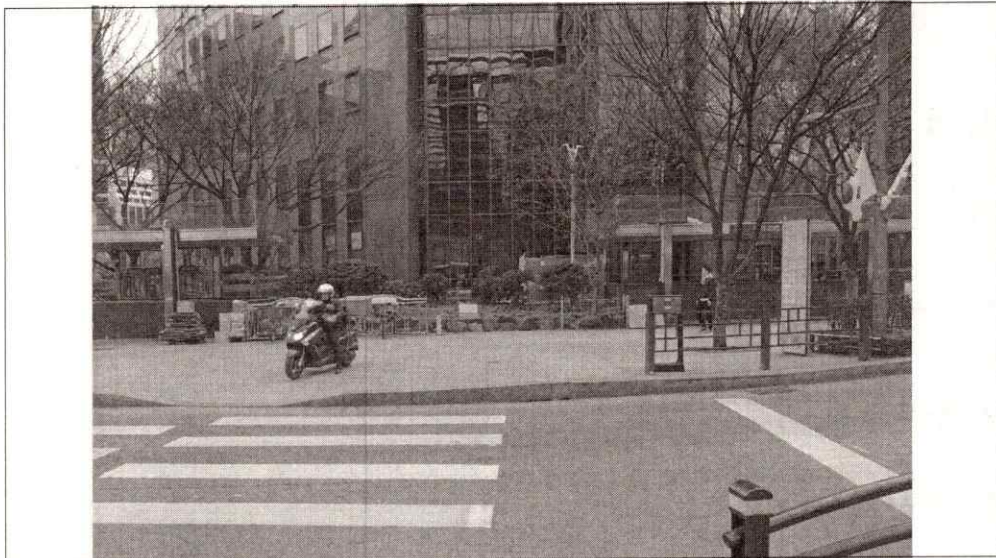
* 연구자 참여 - 자료 검토, 표현 방식, 두루마기와 상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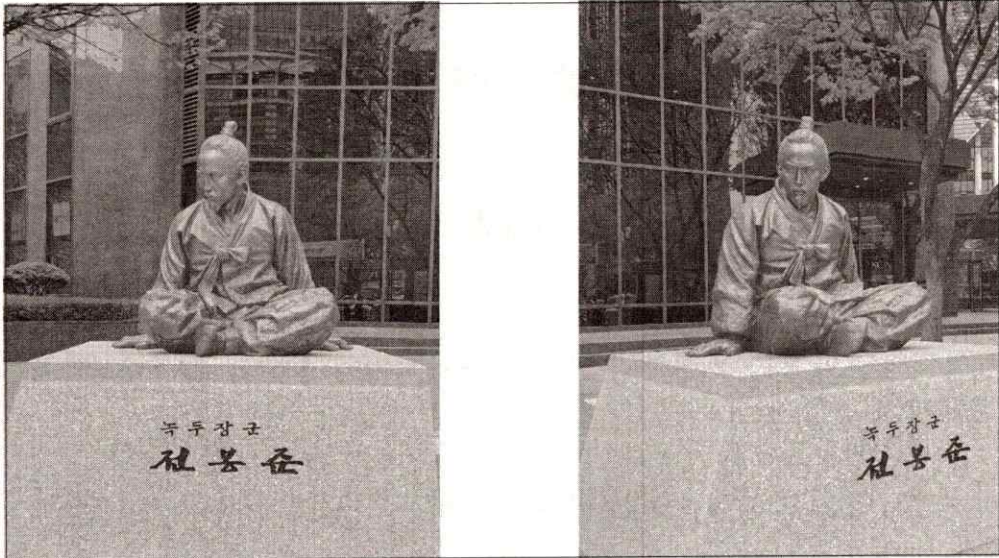
* 좌상과 입상 - 좌상 표현, 바지 저고리

* 웃고름과 상투

2) 동상의 크기







7.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의 의의

1)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 근대화 정책 -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 - 부국강병

* 조선의 대응 ① 조선왕조는 변화하는 동아시아 상황을 인식 못해

② 청일의 근대화 성과를 영선사 신사유람단으로 배워오는 단계

③ 민씨정권은 청국에 의지해서 부패 지속 - 임오군란 갑신정변

2)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 - 체제개혁과 반외세

① 조선사회의 전근대 체제 개혁 - 폐정개혁 : 민씨정권

② 집강소로 민정기관 운영 - 상설 민회 운영

③ 일본의 침략행위에 전면 항쟁 - 상대 : 메이지유신 '원훈'

* 일본 메이지정권 원혼들과 맞설 인물 갖지 못한 조선에서 전봉준은 이들과 맞선 인물

* 동학농민군은 메이지유신이 길러낸 신식군대와 맞선 조선의 최대 대항세력

*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상황을 함께 보는 각도에서 조망할 필요

* 기념사업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추진하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됨

[제2주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 내용과 과제

김 양 식
(충북학연구소)

[연구발표 제2주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장기포 서술내용과 과제

김양식(충북학연구소)

< 목 차 >

I. 머리말

II. 제1~6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동향

III.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동향

I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일정한 통제하에 편찬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치적 성격과 학계의 연구성과가 맞물려 서술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처럼 이념적인 편향성이 강한 역사적인 대사건의 경우 학계의 연구성과와 수준이 진전되면서 서술내용이 진화할 뿐 아니라, 서술 주체에 따라 서술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 동학농민혁명은 해방 후 11차례 역사교과서가 편찬되면서 수시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표 1>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 ⇒ 동학혁명 ⇒ 동학

혁명운동 ⇒ 동학농민혁명운동 ⇒ 동학운동 ⇒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들 개념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학계의 연구성과와 정치적 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농민들의 난으로 인식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정권의 혁명정통성과 연계되었고, 박정희정권이 무너진 1980년대에는 혁명이 빠지면서 동학운동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대 문민정부의 수립으로 사건의 주체가 강조되면서 다시 농민을 삽입, 동학농민운동이란 용어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 1> 교육과정별 동학농민혁명 용어

교육과정	시기	동학농민혁명 용어
제1차	1954-1963	동학란(1957)
제2차	1963-1973	동학란 ⇒ 동학혁명(1972)
제3차	1973-1981	동학혁명운동(1975) ⇒ 동학농민혁명운동(1979)
제4차	1981-1987	동학운동(1982)
제5차	1987-1992	동학운동
제6차	1992-1997	동학농민운동(1992)
제7차	1997-	동학농민운동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 용어는 정치적인 배경과 동기가 강하게 반영되는 반면, 동학농민혁명 시점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학계의 연구성과와 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¹⁾ 해방 이후 교육과정별로 편찬된 역사교과서가 동학농민혁

1)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학학보』 24, 2012;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2012; 서인원,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32, 2014;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2014; 김한중, 「역사교과서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국가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31, 2014; 김태웅,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33,

명의 시작을 어떻게 파악하고 서술하였는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한다. 이는 해방 이후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점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그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술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제1~6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동향

1. 제1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 시기 국사교과는 고대부터 현대사까지 총 9개의 단원을 시대별로 규정하면서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제8단원 ‘조선 후기의 문화’로 설정하고, 그 안에 ‘동학란’을 서술하였다. 당시 검열에 통과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으로, 그 가운데 두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은 교조 최제우가 죽은 후,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중심으로, 침체하였던 교세를 만회하여 삼남을 위시하여 타도에까지 퍼지더니, 마침내 고종 31년에 동학란의 폭발을 보게 되었다.

먼저 광제창생(廣濟蒼生)을 표방하던 동학은 농민들의 불평과 합류하여 제폭구민(除暴救民)의 단체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더니, 탐학한 고부(古阜) 군수 조병갑(趙秉甲)이 가렴주구(苛斂誅求)를 그치지 아니하매,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전라도 지방의 동학 접주(接主) 전봉준(全琫準)을 두목으로 삼고, 난을 일으켰다. 처음 관군을 대파하고 전주 일대

2015;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숭실사학』 37, 2017.

를 점령하여 기세를 올리었으나, 정부가 청한 청나라의 원군이 올 것을 알게 되고 사기를 잃고 해산하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 동학군은 일군(日軍)의 입국과 청·일전쟁에 자극되어 전주에서 다시 기병하여 척왜(斥倭)를 부르짖고, 공주에 진격하였다가 관군, 일군에게 패하여 난의 종말을 보았다.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 농민 전쟁은 처음 그 기세가 내외의 주목을 끌만큼 괴장하였으나, 이를 영도할 만한 큰 인물이 없었고, 비조직적, 무계획적인 폭동에 불과하였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의 영향을 지대하였으니, 대외적으로는 청일 전쟁의 도화선(導火線)이 되었고, 대내외적으로는 갑오경장이라는 피동적인 개혁 실시를 촉발시켰던 것이다.”(이병도, 『국사』, 일조각)

이것은 이병도가 저술한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전문을 옮긴 것은 이 서술체계가 이후 국사교과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단원 구성이 갑오경장과 함께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갑오경장의 배경으로 동학난을 서술하였다. 이는 8단원의 목표가 첫째, 조선의 문호 개방과 외국 세력의 침투를 이해시킨다, 둘째, 우리의 생활과 문화의 근대화를 이해시킨다, 셋째, 자주 독립의 정신을 이해시킨다 등으로, 외세 침략과 근대화를 강조하다보니, 갑오경장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술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실증주의와 식민주의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병도는 동학란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대한 민중들의 난으로 서술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전봉준을 두목으로 내세운 민중들의 난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학은 삼남에 전파되더니, 고종 31년(1894, 甲午)에 괴로운 정치 밑에 신음하던 고부(古阜, 全羅道) 사람들은 군수의 폭정에 반항하여 난을 일으키었다. 난은 호남 일관에 퍼지니, 정부는 전라병사 홍계훈(洪啟薰)을 양호토포사(兩湖討捕使)로 보내었으나, 이를 건잡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청국에 청원하였다.” (홍이섭, 『우리나라 문화사(고등국사)』, 정음사)

이것은 당시 민족주의사학의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홍이섭이 저술한 고등학교 국사책 『우리나라 문화사』에 수록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이병도의 서술처럼 고부군수의 폭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부봉기와 동학란을 구분 짓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 역시 민중들의 폭동, 반란이었다.

2. 제2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제2차 교육과정(1963-1974)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국사 교과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난 뒤 1969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었다. 이 시기 국사교과서는 검인정체제였다.

이때 발간된 국사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혁명 명칭은 5.16의 혁명 정통성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1966년 문교부가 국사교과서 검인정 기준을 제시할 때 ‘동학란’에서 ‘동학혁명’으로 수정하였다. 그에 따라 문교부에서 해방 이후 최초로 1968년에 편찬한 국사교과서 서술 내용 역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동학혁명의 前史로서 동학과 민란을 구분한 점이다. 즉, 동학교조신원운동과 민란이 결합되어 전국적인 혁명으로 발전한 것이 동학혁명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타당하며 진일보한 서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고부민란과 3월 기포를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김상기나 이상옥·차문섭이 저술한 『국사』에서도 고부민란과 3월 기포를 구분하여 동학혁명이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였다.²⁾

3. 제3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1969년부터 부분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교육과정

2) 김상기, 『국사』(상왕사, 1968); 이상옥·차문섭, 『국사(인문계 고등학교)』(문호사, 1968).

발표로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시킨 뒤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정 국사교과서로 전환한 점이다. 그에 따라 국사 교과서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시기 동학농민혁명 용어에 처음으로 ‘혁명’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시작은 이병도가 1972년에 저술한 『국사』(일조각)로 해방 이후 시종일관 사용하던 ‘동학란’ 대신 ‘동학혁명’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그 이후 1974년에 확정된 제3차교육과정(1974-1981)에서 문교부가 편찬한 국사 교과서는 ‘동학혁명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분명한으로 인식하였던 이전보다 한층 진일보한 것이나, 5.16의 혁명 정통성을 동학까지 소급하려는 정권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것이다.³⁾ 1979년에 『시련과 극복』 교과서와 합쳐 부분 개정된 교과서는 ‘농민’이란 용어가 추가되어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수정되었는데, 이 역시 학계의 일정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근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념적 전략으로 농민층을 부각시켜 ‘동학농민혁명운동’이라 한 것이다.

1975년에 문교부에서 펴낸 『국사』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4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고부 관아 습격 사건을 계기로 동학혁명운동이 폭발되었다. 전봉준의 영도 아래 벌어진 고부의 소란은 민요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당한 수습 방안에 분격한 동학 교도들의 3월 기포는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내세운 동학혁명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혁명운동은 충청, 전라도로 파급되어 동학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으며, 전주를 점령하고 전라, 충청 각지를 장악하였다. (중략)

3월 기포는 비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사회 모순 타파 운동이었고, 9월 기포는 백성들의 국가 위기의식과 결부된 반일 민족운동이었던 점에 민

3) 윤현상, 「역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혁명’ 서사의 변화」, 『인문논총』 제1호, 서울대학교, 2018, 196쪽.

족사적 의의가 크다.”

해방 이후 일반적으로 불리어지던 동학난이란 용어 대신에 동학혁명운동이란 명칭을 사용하였고, 그 주체 역시 동학도로 명시하였다. 동학도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동학혁명운동의 전개과정 역시 발생 배경 ⇒ 전개과정 ⇒ 의의 세 단계로 구체적이고 명료화하는 동시에,⁴⁾ 전개과정 역시 3월 기포와 9월 기포로 2분하고 그 성격 역시 각각 반봉건·반침략운동으로 규정하였다. 고부민요 역시 소란 정도로 격하한 뒤 3월 기포를 강조하였으나, 3월 기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그 뒤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가 펴낸 고등학교 『국사』(1979)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부 민란에서 발전한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혁명의 추진이었고, 농민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안으로는 붕괴되고 있는 유교적 전통사회를 부정하여 자율적 개혁을 도모하였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내려는 민족운동의 양상을 나타냈다.

(중략)

조병갑의 토색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나 고부 민란(1894)은, 처음에는 철종 때부터 자주 발생하였던 지방 민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진압과 사후 대책이 졸렬하였다. 이에, 동학 접주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는 수만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게 되어 고부, 태인, 부안, 정읍, 흥덕 등을 휩쓸었다..

이 사태는 민란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그들은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척왜 양이를 주장하고, 드디어 혁명적인 저항의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탐관오리와 일본 상인의 위협을 심히 받아오던 농민이 주동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동학교도가 많았다.”

4) 서인원, 앞의 논문, 172쪽.

고부민란에서 발전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전개과정은 기본적으로 3월 이후와 9월 이후를 나누어 서술하면서도, '기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학의 비중을 낮추다보니 동학교단의 용어인 기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농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부 민란과 동학농민군의 3월 봉기를 질적으로 구분한 점이다. '이 사태는 민란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부 민란과 3월 이후 동학농민혁명운동과는 질적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오지영의 『동학사』에 근거하여 집강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3월에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서술된 점이다. 이것은 비록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3월 고부 백산대회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시점으로 본 것이다.

4. 제4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1981년 12월 문교부 고시로 시작된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1980년대 전두환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루어지었다. 이 시기 국사교과서의 특징은 국정교과서가 현행대로 유지된 점, 시대구분을 명확히 한 점, 근현대사의 비중을 크게 강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⁵⁾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용어는 이전보다 그 이미지가 매우 약화된 '동학운동'으로 변경되었다. 종래 동학혁명운동 또는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불리어 지던 용어는 동학운동으로 격하되었는데, '혁명'과 '농민'이 용어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1980년 새로 집권한 신군부정권이 혁명과 농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였기 때문이다.⁶⁾ 그 결과 동학운동이라는 가장 형편없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동학과 농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동학이 일으킨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한정된 것이다.

5) 서인원, 앞의 논문, 178쪽.

6) 김태웅, 앞의 논문, 237-238쪽.

1982년과 1987년 각각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에서 펴낸 국사(하)에 수록된 동학운동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은 집회가 열린 지 약 10개월 뒤인 1894년 정월에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운동의 불씨가 터졌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고부 민란에서 발전한 동학운동은, 안으로는 유교적 전통사회를 부정하고 개혁 정치를 요구하였으며,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내야 한다는 근대 민족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초기에는 철종 때부터 자주 발생하였던 지방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진압과 사후 대책이 농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므로, 동학교도들이 대규모로 호응하여 수만의 농민과 농민군이 호응하게 되었고, 그 세력이 고부, 태인, 부안, 정읍, 흥덕 등을 휩쓸었다.

이 동학운동은 종래의 민란과 성격이 달랐다. 그들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었을 뿐 아니라, 척왜 양이를 주장하고, 마침내 대대적인 민주 운동으로 확대되어 갔다.”

4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서술내용은 3차 때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고부민란에서 발전한 동학운동’이란 시점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다. 4차 역시 고부 민란과 동학운동을 분명히 구분 짓고 3월부터 동학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5. 제5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은 1980년대 중엽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맞물려 제정되었다. 즉, 1986년 10월 31일 국사교육심의회가 발족하여 국사 교과서 개정 검토에 착수하여 1987년 6월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이 마련되고 그 안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동학운동이란 용어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수정되어 농민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1992년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에서 펴낸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운동은 대체로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기는, 고부 민란의 시기로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 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눠 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

제2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지도 하에 동학농민군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장선,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규정하였으며, 4단계로 나누어 전개과정을 서술하였다. 3차 교육과정까지는 고부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을 명확히 구분하였는데, 제5차에서는 고부 민란을 제1기 전개과정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교과서 서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초기에는 이른바 민란의 양상을 띠고 있었으나, 정부의 수습책이 미흡하자 점차 민란의 성격을 벗어나 대대적인 농민전쟁의 성격을 띠어 갔다.”

즉, 동학농민운동이 민란에서 농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前史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2기의 시작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부 백산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민란까지 소급하게 되면서 이후 교과

서 서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 제6차 교육과정기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은 중학교의 경우 1995년, 고등학교의 경우 1996년부터 각각 적용되었다. 정부는 1994년 3월 18일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1차 시안을 발표한 뒤 일정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국사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에서 펴낸 국사(하)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침내 동학교단 중심의 종교운동을 농민운동으로 전환시켜 갔다. 동학 농민운동은 대체로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기는, 고부 민란의 시기이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 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1894).

제2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동학농민군이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장선,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관련한 서술에 있어서는 제5차 교과서와 대동소이하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네 시기로 구분하면서, 실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은 제2기에 고부와 태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Ⅲ.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동향

1997년 12월에 교육부 고시로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은 이전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교 국사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분류되어 국정으로 편찬되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근현대사를 분리시켜 전근대사만 국정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고등학교 문과에서 선택하는 근현대사 역시 2003년부터 검인정으로 편찬되었다. 7차 교육과정기에 편찬된 국사 관련 교과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제7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 현황

교과서	출판사명	발행년도	비 고
중 학 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2.3.1 초판, 2010.3.1. 재판	
고등학교 국사	두산/교육과학기술부	2001.3.1 초판, 2011.3.1. 재판	
고등학교 한 국 사	삼화출판사	2011.3.1	
	미래엔컬처		
	비상교육		
	법문사		
	천재교육		
	지학사		
고등학교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3.1 초판, 2011.3.1. 재판	
	미래엔컬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법문사		
	두산동아		
	천재교육		

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동학농민운동’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 시기의 『국사』와 대동소이하다. 그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 영역별 성취 기준이 제6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⁷⁾ 다만, 제7차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고부민란, 1차 봉기, 집강소 설치, 2차 봉기, 공주 공방전으로 구분하였다. 제5·6차 교육과정기에 고부민란을 동학농민운동 1단계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고부민란과 동학농민운동을 구분하였다. 이는 제3·4차 교육과정시기로 회귀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따라 제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영향으로 고부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本史로 서술한 경우가 있다. 실제 한국사 교과서 중 비상과 법문, 근·현대사 교과서 중앙과 천재교육 및 두산동아는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1단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두산동아는 동학농민운동이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무장에서 봉기한 것으로 모호하게 서술하였다. 또 미래엔컬처의 경우 사발통문이 돌려지자 고부 주변 백산에 8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으로 서술하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인정 국사교과서 역시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금성에서 펴낸 고등학교 역사부도 역시 ‘고부관아가 있던 자리’ 사진 설명문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곳이라 하였다. 이는 기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표 3> 제7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시작 서술

출판사	동학농민혁명 시작 부분 서술
국사(하)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금성출판사	안핵사로 내려온 이용태가 민란 관련자를 역적죄로 몰아 탄압을 가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전봉준 등은 무장으로 옮겨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봉기하였다. 이것이 제1차 농민 전쟁이다(1894.3)

7) 김태웅, 앞의 논문, 241-242쪽.

중앙교육 진흥연구 소	동학농민운동은 고부의 농민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안핵사의 행위에 분개한 전봉준은 손화중과 함께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하였다.
두산동아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고부 민란 후 농민들에 대한 정부 측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는 보국안민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는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총대장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8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등지를 차례로 함락하였다.
법문사	정부가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면서 농민들을 탄압하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손화중, 김개남과 손을 잡고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를 하였다.
천재교육	동학농민운동의 전개는 대체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 농민 봉기의 단계이다. (중략) 제2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제1차 봉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동학농민군이 전봉준,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하여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기까지의 시기이다.
미래앤컬 처	동학 농민군의 봉기를 촉구하는 사발통문이 돌러지자 고부 주변 백산에 8,000여 명에 이르는 동학 농민군이 모였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에서 특별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무장기포'가 언급된 점이다. 4종의 교과서에서 무장기포를 언급하였다.

이는 1990년대 무장기포가 새롭게 조명되고 상당히 축적된 학계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두산동아의 경우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와 혼돈하고 있고, 천재교육의 경우 이전 교과서의 영향으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전초전이라 하면서도 동학농민운동 제1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시작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전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영향으로 고부농민봉기나 백산대회를 시점으로 서술한 교과서, 1990년대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무장기포설을 수용한 교과서, 이 두 설이 착종된 교과서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기 역사교과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2007년에 뒤이어 2009년에 개정되었고, 뒤이어 2011년 8월에 다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는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사 2』 9종이 2011년에 검인정으로 편찬되었고, 고등학교는 근현대사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통합되어 2014년부터 검인정 8종이 편찬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교과서는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고부농민봉기, 제1차 봉기, 전주화약과 집강소, 제2차 봉기 순으로 서술하였다.

2018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관련 검인정 교과서 17종 모두 고부농민봉기를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일관된 흐름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이전과 이후 현행 교과서의 큰 차이점은 이전 교과서의 경우 상당수의 교과서가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였으나,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로 서술하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현행 교과서의 경우 대부분 무장기포를 언급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장 기포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으로 증명된 사건인 만큼,⁸⁾ 교과서에

반드시 수록되어야만 한다.

다만, 몇몇 교과서는 여전히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였고 무장기포를 잘못 기술한 교과서가 있다. 예를 들어 교학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역사 2』는 고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서술하였고, 지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역시 무장기포를 언급하면서도 고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였고 지도(227쪽) 역시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표기하였다. 무장기포에 김개남이 참여한 것으로 서술하는 오류도 범하였다. 미래엔에서 펴낸 『한국사』 역시 “고부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의 첫 깃발이 오르다”(195쪽)이라고 하였다. 특히 (주)리베르스쿨에서 펴낸 『한국사』만 무장 봉기에 대한 언급 없이 모호하게 기술하였으며, 심지어 전봉준이 동학 접주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 손화중 등이 합세한 것으로 서술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 정리표(222쪽)에는 무장 봉기를 언급하였으나,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이 동시에 봉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내용상의 혼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필자들이 아직 고부 농민봉기 ⇒ 무장 기포 ⇒ 고부 백산대회로 이어지는 운동의 계기별 발전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체제를 뿌리 채 동요시키고 해체시켜 근대사회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 때문에 모든 역사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비중 있게 다루어, 3-8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8) 전봉준이 고부농민봉기를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결국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일련의 과정은 배항섭,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경인문화사, 2002), 274-283쪽 참조.

현행 교과서는 1894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대사건을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동학농민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한국사 집필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894년 대사건은 운동 차원이 아니라, 형태상으로 전쟁, 내용상으로 혁명적인 농민봉기였다. 더욱이 2004년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법을 따라야 하며, 역사교과서 역시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이 교과서에서 혁명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운동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개항 이후 한국 근대사의 중심을 개화파, 개화사상, 개화운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근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개화운동(갑오개혁)의 하위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교과서에 기술되어 왔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은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보는 관점과 인용하는 사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지난 20년 동안 방대한 사료 발굴과 비약적인 연구업적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서술의 오류는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에 대한 서술은 아래 표와 같이 고부민란에서 무장기포로 진전되었다. 그 결과 현행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고부농민봉기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로 다루었고 전국적인 농민전쟁은 무장기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표 4> 해방 이후 교육과정별 동학농민혁명 시점 서술 현황

교육과정	시기	동학농민혁명 시점
1차	1954-1963	1월 고부민란과 3월 기포 구분 못함
2차	1963-1973	1월 고부민란과 3월 기포 구분함
3차	1973-1981	1월 고부민란과 3월 기포 질적으로 구분함
4차	1981-1987	

5차	1987-1992	1월 고부민란을 동학농민운동 제1기로 서술
6차	1992-1997	
7차	1997-현재	무장기포 처음으로 교과서 수록되었으나, 고부봉기 시작설, 고부 백산대회 시작설 등 혼재

해방 이후 역사교과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시작이 ‘고부’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축소시켜 왔다. 그런 의미에서 무장기포를 통해 고부라는 특정지역의 농민봉기와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을 구분 짓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전단계이나, 이전 군현단위 농민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왕조를 상대로 한 전국성을 띤 사건으로, 군현단위의 농민항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부 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과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부 농민봉기는 고종 때 군현단위로 일어난 농민항쟁(민란)의 최정점에 있다면, 동학농민혁명은 농민항쟁의 거대한 흐름이 동학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민전쟁이었다. 19세기 후반 거대한 농민항쟁의 흐름과 동학운동을 하나의 전국 운동으로 통합시킨 것이 혁명가 전봉준이고 그 시작이 무장기포였던 것이다.